

## 29.하나님을 떠날 때의 현상-우상숭배

신명기 30장 17절~18절 "17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언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열매 중 우상숭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떠나다는 것은 외부적인 행동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생명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하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능치 않고, 둘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가능치 않고, 셋째는 우상숭배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상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6절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구절을 말할 때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얘기로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선명하게 이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3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우상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4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5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6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기보시면 우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치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13절 "2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찌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의 우의와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좇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3 그 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4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와 그의 말을 들으라 5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관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6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

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7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어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8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좇았느니라 9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0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피보라 11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2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찌어다 심히 떨찌어다 두려워할찌어다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에 의하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 한 가지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6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디오피아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료를 사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에디오피아까지면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거리만큼 됩니다. 비행기로만 3시간 40분이 걸립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도까지는 45분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그 먼 거리까지 가서 특별한 향료를 사다가 하나님께 특별히 제사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안 섬기고, 이방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지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말도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버린 것도 중심에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데 그들이 마음에서부터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그 삶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지라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것은 우상이 아니냐? 당연히 우상입니다. 불상도 우상입니다. 돌을 세워 놓고 절을 하는 것 당연히 우상입니다. 그런데 훨씬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죄를 즉, 금송아지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월요일부터 돈 버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돈의 법칙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법도재로 하면 망할 것 같은 인식이 가득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는 돈의 법칙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는데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말하면서 너희 지체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드려 의에 병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말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로는 돈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오~ 우리에게 삶에 만족과 기쁨과 우리의 삶에 보호

를 주는 돈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상입니다.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이 설교하면서. 권사님 집에 금송아지 있어요. 무슨 놈의 쓸 데 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는 무슨 놈의 금송아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우상을 외부에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우상 숭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외부에 나타나 있는 것 훨씬 이전에 이 마음에 있는 것이고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할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게 되면 그 결과 중의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인 결과입니다.

두 번째, 사람, 자기 자신, 돈, 명예, 쾌락,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을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습니다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인데, 이분이 쓴 우리나라에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고 번역된 이 책에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자도 우물가의 여인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때로는 성이, 어떻게 때로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녀의 인생의 공허를 채워줄 남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의 공허를 채우는 일은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입니다. 한 남편이 자신의 깊은 내면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자, 그녀는 다른 남자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시점에는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대치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뿐 만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을 대치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돈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과 mammon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이 mammon은 돈을 말하는 것인데, 그 돈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한 말하기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지 아십니까?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있어 돈이 많은 것이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부자인 경우에 그 돈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갖습니다. 돈이 많음으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존경을 표시합니다. 중심에는 안 할지 몰라도. 이 경우에 그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기의 신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 자신에게 인생의 만족을 주고, 자신에게 인생의 기쁨을 주고,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자신에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자부심을 주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입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처럼 사람이건 혹은 자기 자신이건, 돈이건, 명예건, 쾌락이건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소중한 종교적인 행위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종교적인 행위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 다 이해합니다.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소중한 신앙생활에서 매우 소중한 종교적인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공부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전통적인 신앙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이 저자도 동일하게 제가 말씀 드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신앙의 아주 소중한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우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상의 성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치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 오늘날 너무나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는가?

그 아래 첫 번째,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반드시 예배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 보시죠.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이라."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신앙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보았듯이 1장에 보면 그렇게 많은 예배와 그렇게 많은 헌금과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많은 제사,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했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겨 멀리 떠났다고 말한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여기 보시면 저들의 예배가 타락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둘은 나눌래야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가복음 7장 6절-7절에 보고 그 후에 다른 구절을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예수님시대도 그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되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성경을 암송한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금식하며, 누구보다 철저하게 기도하며, 누구보다 철저하게 구제한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규례와 규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타락했노라. 똑같이. 여러분 이치럼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둘은 나뉘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예배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뭐가 타락한 예배인가? 뭐가 하나님을 대치하는 형식적인 예배인가? 어떻게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예배가 타락하면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예배가 타락하면 예배가 형식적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요, 에이든 토어져 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아주 귀한 분이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책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전에 번역되었는데, 그분의 책을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시리즈로 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인가? 쇼인가?' 오늘날 강단에서 쇼를 중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여러분 한 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서도 말하기를 우리의 사역보다 훨씬 먼저 가야 할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이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역이건, 그것이 현실로 봉사건, 그것이 희생이건 그 모든 것이 참다운 것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역보다 먼저 예배라고 그분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인데,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절대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몇 백만, 몇 천 명, 몇 만 명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교회가 갑자기 성장해 가지고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성장해 가지고, 한 달에 천 명씩 모아지더니 나중에 한 달에 만 명씩 늘어가지고 세계적으로 가장 급성장한 교회가 되어서 불과 3년 만에 50만 명이 되었다, 2년 후에 100만 명이 넘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다, 아무리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지도 똑같은 애길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실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아무리 멋있고, 새로운 곡이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또한 언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보시면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 분 자신을 구해 나가는 것’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예를 들면 내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삶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잘 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되 하나님 그 분 자신을 구하여 나오는 것’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드리며, 하나님 그 분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지게 되고, 전적으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그게 예뻐,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배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은 빠진 채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생활을 잘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매우 장엄하고, 그들의 예배가 매우 그럴 듯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화려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엄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엄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장엄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배가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타락하면 형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가 타락하면 의식이 됩니다.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정성스럽게 드리고, 또 어떻게 잘 드리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서, 주일 날 빼 놓지 않고 교회 나와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면 그것이 성공한 것 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배는 매우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타락하면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예배 잘 드리면 복 주시겠지, 예배 잘 드리면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주일 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것이 타락한 율법주의이고, 이것이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 버린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랬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예배와 그 많은 정성과 그 많은 기도가 있어서 그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예배가 마당만 밝고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 말했잖아요.

왜요? 그 속에 중심이 없으니까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었고,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써 그들의 삶에 도움을 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예배가 타락하면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주일 날 되었으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 만날 기대도, 사모함도, 설렘도 없는!  
그날 하나님을 경험하리라는 어떤 기대조차 없는!  
그저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습관을 쫓아 오늘도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예배입니다.  
그것은 전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 왜 그렇게 나오냐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는가?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써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예배 자체를 전통적인 순서를 따라 정성을 다해서 잘 드리면 그 자체가 신앙 생활 잘 한 것처럼 되어버리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이 예배가 대체함으로써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거기에 없습니다.

성경공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죠.  
요한복음 5~6장에 보면 그들은 성경을 잘 연구하고,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전존재로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 그 성경공부 자체를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인격체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으로 잘 못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이 성경공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신앙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신앙이 어떻게 우상이 되는 겁니까?  
우린 신앙은 늘 말씀드린 대로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인격체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즉, 인격체인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 분을 우리의 전존재로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앞서 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 보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앞서 가신 주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성수주일이든지, 십일조든지, 기도든지, 금식이든지 그건 뭐에 필요하냐?

신앙생활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을 따라서 그 외 부적인 신앙은 잘 갖추되, 우리 신앙의 원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든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기 전존재로 동참하여 따라간다는 이 삶이 없게 될 때 전통적인 신앙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정확하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거는!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죠.

주일날 빠지지 않잖아요. 십일조도 빼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살아있고, 돈에 대한 집착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여전히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고!

이처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공부나, 예배나, 전통적인 신앙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입니다.

더 미묘한 우상이 있습니다.

더 미묘한! 쉽게 분별 되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여러 가지 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자기 자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소중한 부분들, 다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뿐만이 아니고요. 어떠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가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게 될 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뭐라고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신성한 만남」이 저자도 그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나 하면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론, 프로그램 그리고 사람들을 사용해서 영적성장과 교회성장을 이루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그것들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도 한다. 무슨 말이나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셀 운동이라고 요즘 많이 일고 있습니다. 요즘 한참 주춤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외국 같은데 보면은 셀을 통해서 사람들이 금방 급성장해서 뭐 몇 십만 되는 교회를 이루었다. 우리가 그러면 셀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잃은 영혼을 구원하시게 한 건 하나님이에요. 셀은 언제 필요하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받을 그릇으로 필요합니다. 그릇으로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잃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해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방법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의 방법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오늘날 교회성장을 위해서 이런 저런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거 우상입니다.

교회가 회복 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 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표와 목적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거든요. 자기의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거든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그들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 나왔을 때 꼬꾸라져서 엎드려져서 하는 말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 갔습니다.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 . . . . 1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부분을 살펴보았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요. 무슨 말이나? 하나님이 하나님 종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부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에 하나님이 만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 주겠다. 이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은 걸 보면 문제없을지는 모르지만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됐는데 만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할 때 모세가 자기자원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가능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미디안을 쳐부수게 하셨을 때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치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굶주린 무리를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자기들은 빵도 돈도 없는 그 시대에 . . . . .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로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일로 부르십니다. 인간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 . . . . 그런데 왜,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신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 . . . .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을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전체로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실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물어요.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을 시도하고 계시느냐고요.

여러분 삶 속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고 . . . . . 그 결과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 . . . .

무슨 말이나고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 . . . .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 . . . . 저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저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임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함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 질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시장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다른 교회를 비방하고 때로는 사람을 많이 데려오면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어떤 때는 심할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은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쳐 주지도 않고, 때로는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내의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빨리 성장했다고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안 아파트 단지 수의 아저씨들은 교회 당신들 사업하는 거 아니냐고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냐고 조롱하면서 출입을 금지 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프로그램이 대체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규의 목적은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거기에 없습니다. 이게 우상이기 때문에 . . . . .

#### 하나님의 목적을 대체하는 것들

저들은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의 대부분을 이기적인 즐거움을 누리는데 허비하고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공의와 가난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등. 하나님의 관심사들에는 무관심하다.

성경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고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민스터메스터나 수많은 가시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야 된다는 말이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요 목적이 되 하나님을 따르되 어떤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6장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부로 인하여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부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되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이 생기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돈을 못 번 사람은 자기는 축복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부를 주셨다면, 부를 주신 목적은 전혀 그게 아닌데, 이거요 하나님을 목적을 대치한 겁니다. 우상입니다. 이걸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묘한 거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데 혹은 구원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교회 출석을 향상 목표를 위한 전도 심방에 심혈을 기울인다’ 무슨 말이나구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잃은 영혼들이. 그런데 우리는 전도의 개념조차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니까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대치한 것입니다. 우상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전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을 자리에 갖다 앉혀 놓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대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기보다 저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대치한 겁니다.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들을 대치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살라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와 자기 입지를 먼저 챙긴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높인다.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목숨을 구원코자 애쓴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나눠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려고 애쓴다. 우리는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조정하여 봉사하게 만든다.’ 여러분 헌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또 성도들로 하여금 당연히 자신들의 전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기다리거나 신뢰하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조정하여 헌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대치하는 우상입니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의 방법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이러한 것들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신앙적으로 아주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한 목적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우상숭배가 나오느냐?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삶속에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대치하는 것입니다. 터진 샘물입니다. 물을 저축하지 못할 거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무리 가득해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은 거기에 없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모양을 갖춘 종교생활은 가득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의 삶속에 거하시며 운행하시는 그 생명, 성령에 약속하신 그 생명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곤고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종교생활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삶의 진정한 기쁨이나 만족이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오는 삶의 기쁨이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참된 생명도 거기엔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본 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대치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하셨잖아요! 그게 순서잖아요. 그걸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특별히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날 타락한 예배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되어 버렸는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 버렸는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의 습관이 되어 버렸는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지극히 타락한 우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만을 살펴보려니까 오늘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사실 우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거든요. 여러분, 이 한 두 가지만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가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자신도 포도나무교회도 크게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아세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아침에 찬양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은 우

상이기 때문에 거기엔 생명이 전혀 없다고. 그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하나님을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 거기에 없다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한 나라가 신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꾼 나라가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토록 절규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질 웅덩이를 한 것이라 그런데 그게 오늘날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인 것을 아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 부분을 강조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터진 웅덩이를, 하나님을 대치하는 것을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 넘치는 생수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생수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살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됨으로 우리 자신에게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절규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상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대치하는 우상이 가득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증표이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부르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